

10년의 '세월' 잊지 아니하였나



중부일보

신연경 기자



안산시 단원구 4·16기억교실 앞에 마련된 노란리본 조형물 모습

“벌써 10년인데 어떤 이유였는지 제대로 관심갖지 못한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네요”

“진실을 알아야 반복되는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이 노랗게 물드는 4월. 취재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곧 내가 한전에 간직했던 마음과도 같았다.

벌써 10년 세월, 매년 봄이 찾아오듯 올해도 어김없이 ‘그날’이 돌아왔으나 세상은 여전히 진실규명과 책임, 약속을 외

치고 있었다.

경기도 안산에서,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항(팽목항)에서 마주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이야기다.

달력에 적힌 ‘수확여행’...
왜 설렘이 슬픔이 되었나

지난 3월, 안산시 단원구에 자리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았다. 실제 4·16기억교실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



2024년 4월 안산시 단원구 4·16기억교실 앞에 안산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게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4월11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단원고 4·16기억교실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떠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보존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4년 4월13일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4·16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열 번째 봄 기억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다.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에 위치한 국민해양안전관 한쪽에 마련된 '노란 리본이 물결치는 추모의 길'

생 250명과 교사 11명이 사용하던 교실 10개와 교무실 1개를 복원한 모습이었다.

당시 학생들이 사용했던 책상과 의자 뿐 아니라 칠판과 교실 문, 창틀, 창문, 천장텍스까지 교실 기록물을 그대로 복원한 추모 공간이다.

무엇보다 각 교실에 걸린 4월 달력에 손 글씨로 크게 '수학여행'이라고 적혀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색색깔 알록달록 꾸며놓은 글씨엔 학생들의 설렘과 즐거움, 기대가 묻어있었다.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안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모여 왁자지껄 담소를 나눴을 자리에는 사진과 생전 좋아했던 물건, 추모객들이 남기고 간 메시지가 놓여 있었다.

학창 시절, 맛있는 급식 메뉴가 나오는 날엔 식단표에 형광펜으로 색칠했던 추억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다. 한 교실 게시판에 부착된 2014년 4월 급식 식단표에 표시된 빗금을 보니 '이번 친구들도 영락없는 어린 학생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빗금 표시는 수학여행 전날에서 멈춰있었다.

특히 2학년 3반 교실 뒤 생일 축하 알림판엔 4월16일이 생일인 김초원 선생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반 학생들이 적어 놓고, 수학여행에 미쳐 챙겨가지 못한 편지가 걸려있었다.

발걸음을 옮긴 교무실에서도 '4월 중 행사' 칠판엔 '학생 비상연락망', '학급명령표', '구급함 및 상비약', '메가폰' 등

준비물과 수학여행 사전교육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학생들과 함께할 수학여행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고자 꼼꼼하게 준비를 마쳤을 선생님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다.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안산 곳곳에서 전시가 한창이었다.

그중에서도 희생자들의 유품으로 꾸며진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물품 특별전-회억정원(回億庭園)'이 기억에 남는다.

전시장 한편에는 희생자의 신발을 모델로 삼아 잃어버린 다른 한쪽의 신발을 도자기로 제작한 안전화, 운동화, 슬리퍼가 있었는데 한참을 들여다봤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을 주제로 공개된 학생들의 유품 37점은 마치 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심성을 지녔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일기장 같았다.

엄마의 생일날 쓴 편지, 예술대학에 진학할 꿈을 꿔던 한 소년의 일렉기타, 친구들과 체육대회 때 선보일 에어로빅 공연에 열중했던 연습장, 야구를 좋아했던 한 소년의 야구복,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동생을 돌보다 요리사를 꿈꾸게 된 한 소년의 프라이팬, 오디션이란 꿈의 기회를 준비하며 밝은 모습으로 찍었던 한 소녀의 프로필 사진 등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했다.

무엇보다 상영되는 영상 속 세월호 참사 이후 형성된 사회의식에 대해,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자 진실규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님들의 메시지에서 '나는 그날의 진실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됐다.

취재를 위해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사회의 어른이자 구성원으로서 잊지 않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억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10년 전, 사고 당시 상황을 TV 뉴스로 보고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합동 분향소를 다녀왔던 나 역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전 그날, 세월에 세월을 더해도 잊지는 못할...

세월호 참사 10주기 취재를 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찾아보니 2014년 5월4일 ‘오늘에서야 다녀왔습니다. 모두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라고 남긴 기록이 있었다.

10년 전, 안산 화랑유원지 내 마련된 정부 합동분향소를 다녀오고 나서 남긴 추모의 글이었다.

당시 다른 지역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나는 강의를 들으러 한창 학교 갈 준비를 하다가 SNS상에 뜬 뉴스를 보고 사고 소식을 접했다. 그 당시 전원 구조됐다는 뉴스 자막에 안도했던 때가, 이후 계속해서 바뀌는 내용에 걱정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정부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단원고 2학년 6반 신호성군 어머니)이 4월13일 안산시 단원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안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단원고가 그리 멀지 않은 동네이다 보니 SNS에서는 선생님을, 아는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는 지인들의 글도 이어졌다.

그중에선 고등학생 시절 인자한 미소가 기억에 남는 옆 반 선생님도 계셨다.

타지역에서 생활하던 그 당시엔 ‘집이 어디냐’는 물음에 안산이라고 답하면 말을 잊지 못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다. 안산은 슬펐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모두의 외침과 바람처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관련 기사(중부일보 2024년 4월 상·중·하 시리즈)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 봄, 세월호 희생자들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온라인을 통해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확산된 바 있다. 노란 리본 이미지에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이라는 문구는 국민들의 소망을 담고 있기도 했다.

노란 리본은 곧 세월호 침몰 사고를

추모하는 의미의 대표적 상징이 됐다. 매년 세월호 추모주기가 다가오면 잊지 말자는 의미로 노란 리본이 곳곳에 걸린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찾는 진도항. 곳곳에 매여있는 노란 리본과 떠난 자와 남은 자의 소통의 끈으로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표현한 하늘나라 우체통도 그 세월을 보여주듯 색이 바랜 모습이었다.

10년 전 그날, 세월호 사고 해역으로 부터 가장 가까웠던 진도군의 당시 팽목항은 구조자들이 도착한 곳이자 희생자들의 신원확인이 이뤄지고, 가족들의 기다림이 이어지던 장소였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기다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진도항 인근에 위치한 팽목기억관. 그곳에서 만난 방문객 한모씨는 가족여행을 가는 길에 9살 손녀에게 세월호참사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들렀다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떠나간 지 벌써 10년이다. 그 동안 어떤 이유였는지 제대로 관심 갖지 못한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다”라고 했다.

현장을 찾은 한 시민모임의 활동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성역 없는 책임자처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고 안전할 권리 법으로 보장하라’,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는 진도항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나도 2014년 4월16일 그날을 기억하고 책임에 대한 약속을 새긴 ‘세월호 기억의 벽’을 한참 들여다봤다.

나는 추모하는 마음으로 매년 4월이

면 가수 고(故) 타니(본명 김진수)의 노래 ‘불망(不忘)-올웨이즈 리멤버(Always Remember)’를 들곤 한다.

아니 불(不), 잊을 망(忘) ‘잊지 아니한 다’는 뜻의 불망.

타니는 2016년 12월23일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잊지 않길 바라는 추모의 의미를 담은 데뷔곡을 세상에 내놨다.

2018년 인터뷰로 만났던 그는 “정말 우연히 사고 두 달 전쯤 단원고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겪고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또래 친구들의 사고에 조심스럽지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말해줬다.

‘세월에 세월을 더해도 / 잊지는 못할 사람 / 아픔에 아픔을 더해도 / 그댈 기다리죠’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를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의 모습이 노랫말과 같이 느껴졌다.

잊지 않고 안전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시간

‘기억·약속·책임’을 주제로 2024년 4월16일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를 타고 여행길에 올랐던 탑승자 가운데 304명이 세상을 떠난 2014년 4월16일. 그날의 또 다른 이름은 ‘국민안전의 날’이다.

10주기 기억식에서도 ‘안전 사회’를 위한 노력에 함께하겠다는 다짐이 잇따랐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에도 한국이 안전한 사회로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의 대다수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6재단이 2024년 6월21일 ‘세월호 참사 1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밝힌 ‘세월호참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리서치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4.3%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전국 20~75세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리 사회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9.9%가 ‘안전하지 않다’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66.6%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과 관련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83.7%에 달했다.

지난 2019년 설립 계획이 세워졌던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인 ‘4·16생명안전공원’은 당초 올해 준공이 목표였으나 설계 공모와 사업비 등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아직 첫삽도 뜨지 못했다.

안산에선 여전히 추모시설 조성을 놓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이어지며, 설립 반대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약속, ‘생명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가. 세월호 10주기 취재는 나의 반성이자 다짐이기도 했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으로 일을 시작한 지 7년, 안산의 주민이자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자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기자이기도 한 나는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지난 봄,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지난 10년에 이어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다가올 10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앞으로의 시간에서 슬픈 감정이 아닌 정확한 진실로 살피는 눈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중부일보 신연경 기자